# 광주 휴일 새벽 모텔 '묻지마 방화' 참사

### 처지 비관 30대 일용직 노동자
### 베개에 불 붙인 뒤 빠져나와
### 2명 숨지고 30여명 다쳐
### 부상자 상당수 위중
### 스프링클러 등 없어 피해 커

22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방화로 불이나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한 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30대 일용직 노동자가 처지 비관 등을 이유로 광주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중 불을 내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크게 다쳤다.

화재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비교적 빠르게 진화됐지만, 이른 새벽시간 화재가 발생한데다 연기가 모텔 바깥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광주북부경찰과 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투숙객 중 15명은 호흡곤란·화상 등으로 긴급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았으며, 대학생 A(21)씨 등 2명은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비응급 환자로 분류된 나머지 18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모텔에는 50여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2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4~5층에 머물던 30여명은 미처 탈출 하지 못하고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로 병원에 이송된 투숙객들은 부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광주에 온 시설 업자들부터 아내와 싸우고 홀로 투숙한 40대 남성, 20대 남녀 커플 등 숙박 사연도 갖가지였다.

투숙객 대부분은 연기를 흡입해 심폐소생술을 받는 등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지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재 진압이 빨랐지만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오래된 시설에 예외 조항을 둔 소방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7년 5월 숙박업소 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한 해당 모텔은 당시 층수나 연면적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등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현 시점에선 당연히 갖춰야 할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업소에서도 예외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없고,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말이다.

실제 이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23대와 소방관 60명 등을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 지 22분 만인 오전 6시 7분께 진화했지만, 피해는 예상보다 컸다.

경찰은 발화지점 인근에 설치된 CC-TV 분석과 해당 객실 침대가 뼈대도 남김없이 불에 탄 점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병원으로 이송된 김모(39)씨를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22일 새벽 0시께 사흘 치 숙박비를 치르고 모텔에 입실했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인 뒤 이불 등으로 덮고 객실을 빠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을 지른 뒤 황급히 도주했던 그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다시 방에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은 뒤 조선대병원 격리실에서 치료 받고 22일 오후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김씨는 "방에 놔두고 온 짐을 챙기기 위해 방문을 열자 갑자기 불길이 거세졌다"고 경찰에 진술하는 한편 방화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숨은 의인 있었나…대피 알린 '쿵쿵쿵' 소리

### 모텔 투숙객들 증언에 경찰 "CCTV에 그런 사람 안보여"

"의인이 있었다고?"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텔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투숙객들이 '쿵쿵쿵' 소리에 잠을 깨 대피가 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일부 투숙객은 숨은 의인(義人)이 활약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경찰은 대피하는 투숙객의 발소리 등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광주 북부경찰과 화재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텔 화재로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신 A(29)씨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전남에 거주하는 A씨는 새벽까지 이어진 연말 모임에 참석하고 모텔에 투숙한 뒤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쿵쿵쿵 문을 두들기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며 "힘겨운 듯한 신음과 함께 뭔가를 치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났다"고 말했다.

A씨가 머물던 방은 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일용직 노동자 김모(39)씨가 투숙했던 308호 객실 옆이었다.

A씨는 자신의 방 안까지 연기가 가득 들어찬 탓에 휴대전화 등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속옷 차림으로 탈출구를 찾았고, 의식이 아득해질 무렵 누군가 힘을 줘 무언가를 두들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이 소리를 낸 사람이 여성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4층과 5층에 있던 투숙객들도 이날 모텔 건물 내에서 '쿵쿵쿵' 울리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3층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 투숙객이 여성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3층 객실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도왔다고 증언했으나 CC-TV상에는 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며 "아마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상황에서 발소리 등이 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

## 5·18 때 반공법 처벌 받은 전경 39년만에 재심 무죄

1980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투경찰이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지난 8월 재심을 청구한 김상회(62)씨에게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지 39년 만이다.

1980년 5월 전주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김씨는 우연히 광주 상황을 전하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듣고, 대학생이었던 동생에게 "북한 방송을 들으면 왜곡·과장한 사실도 있지만 사실적 근거도 있을 것"이라며 조심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편지는 검열됐고, 김씨는 포고령,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해 8월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7년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씨는 지난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의 당시 행동이 5·18 직후 이뤄진 정부 조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미 폐지된 반공법 기준을 따른다고 해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북한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화순 아산초 '전학생 무료 집 제공' 기사회생

### 중앙선관위 "선거법 규제 대상 아냐"…교육청 원래대로 추진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선거법 해석으로 좌초될 뻔 했던 화순 아산초등학교의 학생 유치를 위한 '무료 집 제공'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된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며 유연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화순교육지원청은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관사를 무료로 제공해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측은 "초등학교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학생 유치 목적으로 관사를 증축해 학교(장)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다만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무료 관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람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이에 따라 화순 아산초는 전학을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과 시설 보증금만 받고 사실상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아산초 사례를 계기로 전학생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아산초는 사용하지 않은 관사를 허물고 집을 새로 지어 전학생 가족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학부모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갑자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좌초 위기를 겪었다.

결국 화순교육지원청은 화순군선관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주택 입주자에게 월 60만원을 사용료로 받아 기부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누가 월 60만원씩의 사용료를 내면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오겠느냐"며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화순교육지원청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을 다시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끝에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 또래 집단폭행 살해 10대들 최고 징역 20년

광주에서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최고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0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C(18)군과 D(18)군에게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C군은 살인·공갈·공갈미수 혐의로, B·D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 간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협박하거나 물 고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 E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또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특히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오디션 보러 온 10대 연예인 지망생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징역형

쌍나팔

○… 오디션을 보러 온 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사무실로 불러 성희롱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송유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지난해 10월 오디션을 보러 온 피해자 B(17)양에게 "(가슴을) 만지는 것은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임신하는 것은 겁 안 나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것.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

/연합뉴스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 사건번호 | 매각물건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아파트] | | | | | |
| 2018타경 53214 | 1 | 광양시 가야로345, 103동 14층 1401호 [광영동,브라운스톤가야] 130.023㎡ | 아파트 | 231,000,000 231,000,000 | |
| 2019타경 4813 | 1 | 여수시 여서2로20, 1동 6층 604호 [여서동,금호아파트] 84.79㎡ | 아파트 | 184,000,000 184,000,000 | |
| 2019타경 5342 | 1 | 순천시 연향2로56, 102동 5층 507호 49.14㎡ | 아파트 | 81,600,000 81,600,000 | |
| 2019타경 52584 | 1 | 여수시 덕충2길37, 1층 113호 [덕충동,덕충동귀인그린파크] 59.88㎡ | 아파트 | 72,000,000 72,000,000 | |
| 2019타경 53068 | 1 | 순천시 비봉2길22, 107동 10층 1014호 [조례동,시대아파트] 37.388㎡ | 아파트 | 55,000,000 55,000,000 | |
| 2019타경 53303 | 1 |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52, 107동 13층 1301호 [신기동,신기동우림필유아파트] 123.088㎡ | 아파트 | 423,000,000 423,000,000 |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 | | | |
| 2019타경 5045 | 1 |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57-1 184㎡ | 대 | 158,565,000 158,565,000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
| | | 보성군 보성읍 우산길 26 1층82.96㎡ 2층50.34㎡ 제시외 창고 등 30.7㎡ | 단독주택 | | |
| | |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340-8 15㎡ | 대 | | |
| [대지/임야/전답] | | | | | |
| 2019타경 4288 | 1 |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198-2 1444㎡ | 답 | 687,344,000 687,344,000 | 수목포함매각 |
| 2019타경 4516 | 1 | 광양시 황금동 364 1666㎡ | 전 | 466,480,000 466,480,000 | |
| 2019타경 4998 | 1 |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산32-5 6609㎡ | 임야 | 43,619,400 43,619,400 | |
| 2019타경 5106 | 1 | 광양시 진상면 지원리 899 551㎡ | 답 | 21,682,000 21,682,000 | 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 2 | 동소 961 2271㎡ | 답 | 98,702,000 98,702,000 | 일괄매각,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 | 동소 962 66㎡ | 답 | | |
| | | 동소 963 344㎡ | 답 | | |
| | | 동소 964 426㎡ | 답 | | |

| 사건번호 | 매각물건 물건번호 |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 비고 |
|---|---|---|---|---|---|
| 2019타경 5168 | 1 |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481 321㎡ | 답 | 32,781,000 32,781,000 |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 | 동소 487 526㎡ | 답 | | |
| | | 동소 491 179㎡ | 답 | | |
| | | 동소 493 198㎡ | 전 | | |
| | | 동소 494 1481㎡ | 답 | | |
| 2019타경 52645 | 1 |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산77-6 14182㎡[공유자구자학지분4분의1전부] | 임야 | 35,695,250 35,695,250 |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 | 동소 산76-4 5554㎡[목록1과지분동일] | 임야 | | |
| | | 동소 산78-1 15570㎡[목록1과지분동일] | 임야 | | |
| 2019타경 52706 | 1 |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485-5 166㎡ | 답 | 37,350,000 37,350,000 | |
| 2019타경 52942 | 1 |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1229-3 3323.5㎡ | 답 | 66,470,000 66,470,000 | 농지취득자격증명요 |
| 2019타경 53129 | 1 |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271-5 88㎡[공유자정상화지분26분의5전부] | 대 | 7,537,400 7,537,400 |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
| [자동차,중기] | | | | | |
| 2019타경 5991 | 1 | 사용본거지: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용봉동] 등록번호:광주50마2773 차명:그랜저XG 연식:2001 | 자동차 | 340,000 340,000 |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25순천자동차매매상사 |
| 2019타경 8709 | 1 | 사용본거지: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로 52 등록번호:92노9648 차명:대우CNG5톤급암롤트럭 연식:2009 | 자동차 | 19,000,000 19,000,000 | 보관장소:순천시 충효로25이수자동차매매상사 |
| 2019타경 55002 | 1 | 사용본거지:전남 순천시 남정동 신흥1길 62[남정동] 등록번호:34라9704 차명:투싼[TUCSON] 연식:2018 | 자동차 | 19,000,000 19,000,000 | 보관장소:순천시 충효로25이수자동차매매상사 |
| 2019타경 55378 | 1 | 사용본거지:전남 순천시 해룡면 인덕로 116 등록번호:전남07나5669 기종:기중기 연식:1995 | 건설기계 | 170,000,000 170,000,000 |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45[순천자동차매매상사] |
| [기타] | | | | | |
| 2019타경 5465 | 1 | 선적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태현호 어선번호:1512008-6461301 선질:에프.알.피 총톤수:9.77톤 기관의종류와수:선박용디젤기관 1대 추진기의종류와수:나선일체식추진기 1기 | 선박 | 207,957,000 207,957,000 | 진수년월일:2015년12월24일.보관장소:국동항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각기일 : 2020. 1. 6. [월] 10:00
2. 매각결정기일 : 2020. 1. 13. [월] 16: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4.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서홍석